第１１回
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
제１１회
백제문화국제심포지엄

日　時：２０１９年1月１２日（土）９：３０～１７：５５
会　場：帝塚山大学　奈良・東生駒キャンパス１号館
主　催：帝塚山大学　奈良教育大学　公州大学校（韓国）
共　催：東京学芸大学
後　援：奈良県教育委員会　奈良市教育委員会　奈良新聞社

日　程　表

9:00- 9:30	受付		
9:30- 9:40	開会挨拶	帝塚山大学長	蓮花　一己
9:40-10:50	基調講演		
	正倉院宝物が語る百済文化	帝塚山大学教授	牟田口 章人
10:50-12:00	研究発表		
	朝鮮式山城に対する文献記録の検討	公州大学校教授	徐 程錫
	百済寺院の立地－谷に造営された寺々－	帝塚山大学教授	清水 昭博
12:00-13:10	昼食 帝塚山大学附属博物館見学		
13:10-13:20	挨拶	奈良教育大学長	加藤　久雄
13:20-15:05	研究発表		
	近江国における百済の影響 ―宮井廃寺出土の塑像片を中心として―	帝塚山大学講師	戸花 亜利州
	７世紀の横穴式石室	奈良教育大学教授	金原 正明
	古代東国の渡来系資料としての溝もち掘立柱建物	東京学芸大学教授	日高 慎
15:05-15:25	休憩		
15:25-17:45	研究発表		
	三国時代の韓半島と日本列島の交流 ―5～6 世紀を中心に―	公州大学校教授	洪 潽植
	古代日本と百済の文様塼の使用法の比較検討	帝塚山大学大学院生	山本 剛史
	3D データを用いた石造物の研究 ―清州清原区飛中里三尊石仏の考察―	奈良教育大学大学院生	佐野 宏一郎
	十王の配置について ～韓国の冥府殿十王像から見る東アジア十王図～	奈良教育大学大学院生	吉田 万智
17:45-17:55	閉会挨拶	公州大学校総長	朴　達遠

※当日の日程は、変更される場合があります。

일 정 표

9:00- 9:30	접수		
9:30- 9:40	개회인사	데즈카야마대학 학장	렌게 가즈미
9:40-10:50	기조 강연		
	쇼소인(정창원)의 보물에서 보여지는 백제문화	데즈카야마대학 교수	무타구치 아키토
10:50-12:00	연구발표		
	朝鮮式山城에 對한 文獻記錄의 檢討	공주대학교 교수	서정석
	백제사원의 입지 -계곡에 조영된 절들-	데즈카야마대학 교수	아키히로
12:00-13:10	중식 데즈카야마대학 부속박물관 견학		
13:10-13:20	인사	나라교육대학 학장	가토 히사오
13:20-15:05	연구발표		
	오우미노쿠니에 있어서의 백제의 영향 -미야이 절터 출토의 소상편을 중심으로-	데즈카야마대학 강사	도바나 아리스
	7 세기의 횡혈식 석실	나라교육대학 교수	가네하라 마사아키
	고대 동국의 도래계자료로서의 도랑이 있는 굴립주 건물	동경학예대학 교수	히다카 신
15:05-15:25	휴식		
15:25-17:45	연구발표		
	三國時代 韓半島와 日本列島의 交流 -5~6 世紀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수	홍 보식
	고대 일본과 백제의 문양전 사용법 비교 검토	데쓰카야마대학 대학원생	야마모토 다케시
	3 차원스캔자료를 이용한 석조물의 연구 -청주 청원구 비중리 삼존석불의 고찰-	나라교육대학 대학원생	사노 고이치로
	시왕의 배치에 관하여 ~한국의 명부전 시왕상에서 보는 동아시아 시왕도~	나라교육대학 대학원생	요시다 마치
17:45-17:55	폐회인사	공주대학교 총장	박 달원

※당일 일정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第１１回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の開催にあたって

帝塚山大学
学長　蓮花　一己

２００８年に百済の都の地である韓国・公州ではじまった「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は、今年で第１１回を迎えることとなりました。これまでのシンポジウムでは、日韓の研究者や大学院生が百済文化に関する様々な研究テーマで発表し、貴重な研究成果を蓄積するとともに、日韓両国の交流を深めてまいりました。

韓国公州大学校と東京学芸大学の共催で開催された本シンポジウムは、２００９年におこなわれた第２回から奈良教育大学が参加し、２０１６年の第９回からは帝塚山大学が主催として加わることになりました。毎年、韓国と日本で交互に本シンポジウムを開催してきましたが、第１１回を迎える本年、帝塚山大学で開催する運びとなりました。

帝塚山大学が立地する古都奈良は、百済と深い縁をもつ地です。６世紀に百済から伝えられた仏教は、奈良・飛鳥の地に根を下ろしました。日本最初の仏教寺院である飛鳥寺の造営には、百済から派遣された僧や技術者の支援があったことが伝えられます。

また、帝塚山大学と韓国の間には、学術的に深い関係があります。２００４年に開設した附属博物館が所有する古瓦コレクションには、百済をはじめとした２９８４点の韓半島の古瓦があります。帝塚山大学ではこうした古瓦の研究を進め、２０１７年に韓国国外所在文化財団、２０１８年に韓国瓦学会と学術協約を結び、日韓の古代瓦研究を深めています。こうした学術的背景からも、帝塚山大学で本シンポジウムが開催されますことを誠に光栄に存じます。

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の目的は、「千数百年に遡る日韓文化交流の歴史の歩みを辿りつつ、未来に向けた日韓文化交流の促進に貢献する」ことにあります。本シンポジウムが４大学の研究交流の深化と、日韓の歴史的理解を深め、より確かな国際交流の絆を築く、友好親善の機会となりますことを祈念いたします。

제 11 회 백제문화국제심포지엄의 개최에 즈음하여

데즈카야마학 학장
렌게 가즈미(蓮花　一己)

2008 년 백제 수도인 한국의 공주에서 시작된 「백제문화국제심포지엄」은 올해로 제 11 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심포지엄에서는 한일연구자나 대학원생이 백제문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테마를 발표해 귀중한 연구성과를 축적함과 동시에 한일 양국의 교류를 다져왔습니다.

한국 공주대학교와 동경학예대학의 공동개최로 했던 본 심포지엄은, 2009 년에 열린 제 2 회 부터 나라교육대학이 참가하여 2016 년에 제 9 회부터는 데즈카야마대학이 주최로 하여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본 심포지엄을 개최해 왔습니다만 제 11 회를 맞이해 올해는 데즈카야마대학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데즈카야마대학이 자리하는 고도 나라는 백제와 깊은 인연을 갖는 땅입니다. 6 세기 백제에서 전해진 불교는 나라 아스카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일본 최초의 사찰인 아스카데라의 조영에는 백제에서 파견된 승려와 기술자의 지원이 있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데즈카야마 대학과 한국 간에는 학술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2004 년에 개설한 부속박물관이 소유하는 고와(古瓦)컬렉션에는 백제를 시작으로 하는 2984 점의 한반도의 고와가 있습니다. 데즈카야마 대학에서는 이러한 고와의 연구를 진행해 2017 년에 한국국외소재문화재단, 2018 년에 한국기와학회와 학술협약을 맺고 한일 고대기와연구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술적 배경에서도 데즈카야마대학에서 본 심포지엄이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제문화국제심포지엄의 목적은 「오랜세월를 거슬러 올라가는 한일문화교류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가며, 미래를 향한 양국 문화교류의 촉진에 공헌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본 심포지엄이 4 개 대학의 연구교류의 심화와 더불어 양국의 역사적 이해를 더해, 보다 확고한 국제교류의 매듭을 만들어 우호친선의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第 11 回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の開催にあたって

奈良教育大学
学長　加藤久雄

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は、2008 年 10 月 31 日に、公州大学校において第 1 回が開催されました。当時、扶余の地で「古都扶余をめぐる日韓の文化交流」をテーマとした百済歴史再現計画が持ちあがっていたそうで、「百済文化を介した日韓文化の交流の可能性を探ること」がこのシンポジウムの原点となりました。以来、毎年、韓国（公州大学校）と日本（東京学芸大学・帝塚山大学・奈良教育大学）とで交互に開催されてきました。そして、「百済と日本の文化に関する研究交流を通じて、日韓関係の歴史的理解を深め、より確かな国際交流の絆を築いていく」ことを目的として、第 11 回を迎えました。百済をテーマとした国際シンポジウムが 10 年を越えて持続的に開催されていることに、改めて、その意義を見いだすとともに大変嬉しく思います。

ところで、私の専門は日本語学ですが、昨年の第 10 回は所用でどうしても日本を離れることができず欠席となりましたが、第 2 回から第 9 回までは公州での開催も含め全て参加してまいりました。そのきっかけとなりましたのは、第 2 回の本学での開催の時に司会をしたことにあります。おそらく、その時、司会をしなければ、百済の文化や韓国とのことも今より遠い存在のままになったと思います。今では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を楽しみにしていることでは、どなたにも負ける気がしません。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によって、学術の側面だけではなく、韓日の国際交流の絆が深まっていったことが何よりも嬉しく思います。

今後も、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を通じて、「より確かな国際交流の絆が築かれていく」ことを願ってやみません。最後になりましたが、本シンポジウム開催にあたり、ご尽力いただきました方々に深くお礼申しあげます。

제 11 회 백제문화 국제심포엄의 개최에 즈음해

나라교육대학 학장

가토 히사오(加藤　久雄)

백제문화 국제심포지엄은 2008년 10월 31일 공주대학교에서 제 1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부여 지역에서 「고도 부여를 둘러싼 한일의 문화교류」를 테마로 한 백제역사 재현 계획이 기획 있었다고 하는데「백제문화를 매개로 한 한일 문화의 교류의 가능성을 찾는다」는 것이 본 심포지엄의 원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매년 한국 (공주대학교)와 일본 (도쿄학예대학·데즈카야마대학·나라교육대학)이 돌아가며 개최해 왔습니다. 이러한「백제와 일본의 문화에 관한 연구교류를 통해 한일관계의 역사적 이해를 심화시키고, 보다 확고한 국제교류 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해서 제 11 회를 맞이했습니다. 백제를 테마로 한 국제심포지엄이 10 년을 넘어 계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세기며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첨언을 드리면 제 전공은 일본어학이기는 하지만 작년 제 10 회 때 업무로 부득이 일본을 떠날 수 없어 결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 2 회부터 제 9 회까지 공주에서의 개최를 포함해 전부 참석해 왔습니다. 이러한 동기가 된 것은 제 2 회를 나라교육대학에서 개최했을 때 사회를 본 것이 인연입니다. 아마도 그때 사회를 담당하지 않았다면 백제의 문화와 한국과의 교류에 관한 사안은 지금보다 먼 존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의 백제문화 국제심포지엄에 대한 제 기대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백제문화 국제심포지엄에 의해 학술적 측면 뿐 아니라 한일 국제교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던 것을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백제문화 국제심포지엄을 통한 「보다 확고한 국제교류 관계 구축」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심포지엄 개최에 있어 진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目　次

（基調講演）
正倉院宝物が語る百済文化・・・・・・・・・・・・・・・・・・・・・・・・・・・・・１０
牟田口 章人（帝塚山大学）

（研究発表）
朝鮮式山城に対する文献記録の検討・・・・・・・・・・・・・・・・・・・・・・・・１３
徐 程錫（公州大学校）

百済寺院の立地－谷に造営された寺々－・・・・・・・・・・・・・・・・・・・・・・１６
清水 昭博（帝塚山大学）

近江国における百済の影響―宮井廃寺出土の塑像片を中心として―・・・・・・・・・１８
戸花 亜利州（帝塚山大学）

７世紀の横穴式石室・・・・・・・・・・・・・・・・・・・・・・・・・・・・・・・２０
金原 正明（奈良教育大学）

古代東国の渡来系資料としての溝もち掘立柱建物・・・・・・・・・・・・・・・・・・２２
日高 慎（東京学芸大学）

三国時代の韓半島と日本列島の交流―5～6 世紀を中心に―・・・・・・・・・・・・・・２６
洪 潽植（公州大学校）

古代日本と百済の文様塼の使用法の比較検討・・・・・・・・・・・・・・・・・・・・３０
山本 剛史（帝塚山大学大学院）

3D データを用いた石造物の研究―清州清原区飛中里三尊石仏の考察―・・・・・・・・３２
佐野 宏一郎（奈良教育大学大学院）

十王の配置について～韓国の冥府殿十王像から見る東アジア十王図～・・・・・・・・３５
吉田 万智（奈良教育大学大学院）

목 차

기조 강연
쇼소인(정창원)의 보물에서 보여지는 백제문화・・・・・・・・・・・・・・・・・・・・１０
데즈카야마대학 문학부 무타구치 아키토

연구발표
朝鮮式山城에 對한 文獻記錄의 檢討・・・・・・・・・・・・・・・・・・・・・・・・１３
서 정 석(공주대학교)

백제사원의 입지 -계곡에 조영된 절들- ・・・・・・・・・・・・・・・・・・・・・１６
데즈카야마대학 시미즈 아키히로(清水 昭博)

오우미노쿠니에 있어서의 백제의 영향
-미야이 절터 출토의 소상편을 중심으로-・・・・・・・・・・・・・・・・・・・・・１８
데즈카야마대학 도바나 아리스(戸花 亜利州)

7 세기의 횡혈식 석실 ・・・・・・・・・・・・・・・・・・・・・・・・・・・・・・・２０
나라교육대학 가네하라 마사아키(金原 正明)

고대 동국의 도래계자료로서의 도랑이 있는 굴립주 건물 ・・・・・・・・・・・・・２２
도쿄학예대학 문화재과학분야 히다카 신

三國時代 韓半島와 日本列島의 交流-5～6 世紀를 중심으로-・・・・・・・・・・・・・２６
홍보식(공주대학교)

고대 일본과 백제의 문양전 사용법 비교 검토 ・・・・・・・・・・・・・・・・・・・３０
데즈카야마대학 인문과학연구과 일본전통문화전공
야마모토 다케시(山本 剛史)

3 차원스캔자료를 이용한 석조물의 연구
-청주 청원구 비중리 삼존석불의 고찰-・・・・・・・・・・・・・・・・・・・・・・３２
나라교육대학대학원 사노 고이치로(佐野 宏一郎)

시왕의 배치에 관하여 ～한국의 명부전 시왕상에서 보는 동아시아 시왕도～・・・３５
나라교육대학대학원 교육학연구과 석사과정
교과교육전공 조형표현·전통문화교육 전수 M2 요시다 마치(吉田 万智)

第１１回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基調講演

正倉院宝物が語る百済文化

帝塚山大学文学部
牟田口 章人

概要

日本の畿内には韓半島で栄えた百済文化の余香が、１３００年を経た２１世紀になっても漂う。最初に紹介するのは扶余の陵山里寺跡遺跡出土遺物の金銅板である。陵山里寺跡遺跡からは国宝 287 号・百済金銅大香炉に代表される 6 世紀の優れた工芸品が数多く発掘された。演者が注目するのは国立扶余博物館に常設展示されている金銅板で、そこには現存する斑鳩・法隆寺の金堂と殆ど同じ荘厳の寺院内の様子が槌挺（打ち出し技法）で表現されている。坐像の中尊は定かではないが、火炎文の光背があり、その右脇には法隆寺の釈迦三尊像の脇侍に良く似た菩薩立像が表現されている。驚くのは中尊の上の天蓋の表現で法隆寺金堂内陣に吊るされた天蓋にそっくりである。隅に鳳凰があしらわれていることも同じである。法隆寺の天蓋は３つあり 2008 年、中の間の天蓋に使われた檜が年輪の年代測定から法隆寺創建の前年、606 年に伐採されたものが含まれ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陵山里寺との時間差はわずか 40 年。567 年に建立された陵山里寺に由来する金銅板の仏教世界が、そのまま斑鳩で法隆寺となった、と断定するのは時期尚早であろうが、比類のない価値を秘めたこの金銅板の評価が日本でも深まることが望まれる。

続いて紹介するのは正倉院宝物と「百済」の話である。奈良の正倉院には 8 世紀の聖武天皇と光明皇后が宮廷で使われた宝物が伝わるが、正倉院宝物の根本資料である国家珍宝帳には藤原鎌足が百済最後の王・義慈王から贈られた厨子があったことが記されている。赤漆欟木厨子と名付けられたこの家具は藤原家出身の光明皇后が祖父伝来の宝物として天皇家に嫁いだときに持参、のち東大寺に寄進したものであろう。残念なことに鎌倉時代以降に失われ、現存はしていない。けれどもこの厨子を彷彿とさせる古様の厨子が正倉院には今も伝わる。その形は陵山里寺出土金銅板の天蓋を彷彿とさせるものである。この厨子は赤漆文欟木厨子と似たような名称があるので紛らわしいが、天武天皇以来、代々天武王朝の正当性を証す宝物として伝わったものである。明治時代に大修理が施されてはいるが、外に反った吹き返しのある姿は、陵山寺里遺跡の金銅板の天蓋にルーツ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近年の百済発掘成果をもとに、殆ど知られていない百済と日本の交流について話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

제 11 회 백제문화 국제심포지엄 기조 강연

쇼소인(정창원)의 보물에서 보여지는 백제문화

테츠카마대학 문학부
무타구치 아키토

개요

일본의 기나이[注1]에서는 한반도에서 번영한 백제문화의 여향이 1300 년을 지나 21 세기가 되어도 그 향기를 풍기고 있다. 본 강연자가 최초로 주목한 곳은 부여의 **능산리절터유적 출토유물인 금동판**이다.

능산리절터유적에서 국보 287 호・백제금동대향로 대표되는 6 세기의 우수한 공예품이 다수 발굴되었다.

먼저 본 강연에서 국립부여박물관에 상설전시되고 있는 금동판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곳에는 현존하는 이카루카・호류지의 금당과 거의 같은 장엄의 사원내의 모습이 퇴청(얇은 금속판을 안에서 두들겨서 바깥으로 모양이 나오게 하는 기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좌상의 중존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화염문 광배가 있고, 그 오른쪽 편에는 호류지의 석가삼존상과 거의 비슷한 보살입상이 표현되어 있다.

놀라운 점은 중존상 천개에 표현으로 호류지 금당 내진(본존을 모시는곳)에 걸려있는 천개와 똑같다.한구석에 봉황이 배합되어 있는 것도 같다.호류지의 천개는 3 개가 있고, 2008 년 가운데 방의 천개에 사용된 히노키의 연륜 (나이테)을 측정해보니 호류지 창건 바로 전 해인 606 년에 채벌 된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능산리절과의 시간차는 겨우 40 년.567 년에 건립된 능산리절에서 유래한 금동판의 불교세계가 그대로 이카루카에서 호류지로 들어왔다고 단정하기에는 시기상조일지도 모르지만 유례가 없는 가치가 숨겨져 있는 이 금동판에 대한 평가가 일본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계속해서 소개하는 것은 쇼소인 (정창원)의 보물과「백제」의 이야기이다.

나라(奈良)의 쇼소인(정창원)에는 8 세기의 쇼우무천황과 고묘황후가 궁전에서 사용한 왕실의 보물이 전해져 온 것이지만, 정창원보물의 근본자료가 있는 국가진귀보물장부에는 후지하라카마타리가 백제의 최후의 왕인 의자왕에게 선물 받은 주자(문짝에 달려있는 장식)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적칠관목주자라고 불리어지는 이 가구는 후지와라가문 출신의 고묘황후가 조부전래의 보물로서 황실에 시집을 오면서 지참한 것으로, 훗날 도다이지(동대사)에

注1 기나이: 고대 일본의 율령제도로, 도성주변의 5 国으로, 야마토国(현 나라), 야마시로国(현 쿄토), 가와치国(오사카후 남동부), 세츠国 (오사카 북서부, 효고현 동부), 이즈미国(오사카후 남부)에 해당, 지방행정구역, 이 논문에서는 황궁 근처를 말하고 있다.

희사한다.유감스럽게도 가마쿠라시대이후 분실되어 현존하지 않는다.그렇지만 이 주자(궤)를 방불케 할 만큼의 옛날의 주자가 쇼소인(정창원)에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그 형태가 능산리사출토 금동판의 천개를 방불케 한다.적칠문관목주자와 비슷한 명칭인 이 주자는 현존한다.
덴무천황이후, 대대로 덴무왕조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보물로 전해져 온다.
메이지시대(명치시대)에 큰 수리가 있었지만, 밖으로 젖혀져 되 살아난 모습은, 능산리절터유적 금동판의 천개에서 그 기원(뿌리)을 찾을 수 있다.
최근 백제발굴성과를 기초로 하여 거의 알려지지 않은 백제와 일본의 교류에 대하여 밝혀보고 싶다.

朝鮮式山城に関する文献記録の検討

徐 程 錫　　国立公州大学

周知の通り、西日本の古代山城には2種類がある。「朝鮮式山城」と「神篭石式山城」がそれである。「朝鮮式山城」は、山城の名前や築城の責任者、築城時期が文献記録に残っている山城をいうもので、神篭石式山城は、そういう記録のないものをいう。

このような点では、西日本の古代山城の中から「朝鮮式山城」といえるのは、長門城、大野城、基肄城、鞠智城、金田城、屋嶋城、高安城、常城、茨城、などが挙げられる。他に山城とはいえないが、水城もまた664年に築造された点では広い意味での 「朝鮮式山城」に入れることができると思われる。

ところで、これら「朝鮮式山城」と関連した文献記録を検討すると、いくつかの特徴がみられる。まず、「朝鮮式山城」は、 対馬から大阪に至る、いわば国境から当時の王京につながるルート上に位置していることである。 台湾も(金田城) -九州 (大野城、 基肄城、 鞠智城) −四国(屋嶋城) −本州(長門城、 常城、 茨城、 高安城)にそれぞれ位置している。このような山城の配置は、百済の縦心防禦体系を思い浮かばせる。 百済はすでにこのような山城配置によって高句麗や新羅の侵入に備えていた。そのため、復興運動の際は、扶余に駐留していた羅唐聯合軍は新羅から扶余へ運ばれる軍用米をすべてその中間地である大田の黒石洞山城で断たされ、困難を容儀なくされた。 西日本の 「朝鮮式山城」は、百済の貴族らにより、百済のように山城による縦心防禦体系を念頭に置いた配置である可能性がある。

2 番目は、「朝鮮式山城」の中でもっとも早く築造されたのは長門城、つまり長門国城である。このことは、九つの「朝鮮式山城」があるが、もし1つだけを築城したとしたら、長門城になったことを意味する。実際に百済は、これと似た城郭戦を行った経験があった。 錦江に対する防御作戦がそれである。錦江を通って外部の勢力が百済を攻める場合は、伎伐浦に上陸するしかない。もし、船に乗って川を遡って上がってくる場合は、錦江の左右に待ち構えて火矢で攻撃すれば、扶余へはそれ以上進むことができなくなる。下関のある場所は、百済から倭の王京につながるルートの中で、もっとも幅が狭い海峡である。ここを守れば、羅唐連合軍の瀬戸内海への前進ができなくなる。そのため、百済の遺民は、羅唐聯合軍の攻撃を断つ最も効率的な場所としてここを選んだと思われる。

結局、文献記録を通して、百済遺民と大和政権は百済のやり方と同じ方式で羅唐聯合軍に対抗しようとしたことが分かる。このような防御態勢こそ「朝鮮式山城」が百済山城の影響で出現したことを立証する証拠となるものと考えられる。

朝鮮式山城에 對한 文獻記錄의 檢討

徐 程 錫

(公州大學校)

주지하다시피 서일본의 고대산성에는 두 종류가 있다. '朝鮮式山城'과 '神籠石式山城'이 그것이다. '朝鮮式山城'은 산성의 이름이나 축성 책임자, 축성 시기가 문헌기록에 남아 있는 산성을 말하는 것이고, 神籠石式山城은 그러한 기록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서일본의 고대산성 중에서 '朝鮮式山城'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長門城, 大野城, 基肄城, 鞠智城, 金田城, 屋嶋城, 高安城, 常城, 茨城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산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水城 역시 664년에 축조하였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朝鮮式山城'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朝鮮式山城'과 관련한 문헌기록을 검토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朝鮮式山城'은 對馬島에서 오사카(大阪)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서 국경에서 당시의 王京에 이르는 루트상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만도(金田城) - 큐슈(大野城, 基肄城, 鞠智城) - 시코쿠(屋嶋城) - 혼슈(長門城, 常城, 茨城, 高安城)에 각각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산성 배치는 백제의 縱心防禦體系를 생각하게 한다. 백제는 이미 이러한 산성배치를 통해 고구려나 신라의 침입에 대비해 왔다. 그랬기 때문에 부흥운동 때에 부여에 자리하고 있던 羅唐聯合軍은 新羅에서 扶餘로 전해오는 군량미를 모두 그 중간인 大田 黑石洞山城에서 차단당하여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서일본의 '朝鮮式山城'은 백제의 귀족들에 의해 백제에서와 같이 산성에 의한 縱心防禦體系를 염두에 둔 배치가 아닌가 한다.

두 번째는 '조선식산성'중에서 가장 먼저 축조되는 것이 長門城, 곧 長門國城 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9개의 '朝鮮式山城'이 있지만 하나만 쌓으라고 한다면 바로 長門城만을 쌓았을 거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백제는 이와 비슷한 성곽전을 실시하였던 경험이 있다. 금강에 대한 방어작전이 그것이다. 금강을 통해 외부세력이 백제를 공격해 온다면 伎伐浦에서 상륙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오게 되면 금강 좌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불화살로 공격하면 부여쪽으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된다.

시모노세키(下關)가 있는 곳은 백제에서 倭의 王京에 이르는 루트 중에서 가장 폭이 좁은 해협으로, 이곳을 지키면 나당연합군이 瀨戶內海쪽으로 전진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百濟 遺民들은 羅唐聯合軍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이곳을 선택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결국 文獻記錄을 통해서 볼 때 百濟遺民과 大和정권은 백제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羅唐聯合軍에 대항하려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어체계야말로 '朝鮮式山城'이 百濟山城의 영향을 받아 출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가 아닌가 한다.

百済寺院の立地－谷に造営された寺々－

帝塚山大学　清水　昭博

百済第 30 代の王、武王が益山に造営した弥勒寺は、今はその姿を遺跡に変えてはいるものの、在りし日のその広大な姿を想像させてくれる。しかし、日本の古代寺院を知る者にとって、弥勒寺跡の立地は特異に感じられ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弥勒寺は弥勒山から南に延びる二本の尾根に挟まれた大きな谷を利用して造営されているのである。だが、谷に造営された寺院は弥勒寺だけでなく、泗沘都城周辺のいくつかの寺院にもみられるのである。今回の発表では、泗沘都城周辺に造営された百済寺院の立地を分析し、谷という土地を選んで造営された百済寺院の様相とそうした寺院の成立、展開の状況とその背景を検討したいと思う。

泗沘都城周辺にある百済寺院 26 ケ寺のなか、佳塔里寺跡、観音寺跡、陵山里寺跡、臨江寺跡、王興寺跡、虎岩寺跡の 6 ケ寺が弥勒寺跡と同様に谷を選んで造営された「谷」寺に相当する。これらの寺院のなかで最も創建年代の古いのは陵山里寺跡であり、550 年代に造営がはじまった陵山里寺跡が百済の「谷」の起源と考えられる。

陵山里寺跡の立地は聖王墓（陵山里古墳群・中下塚）に既定されているが、隣接する谷の利用は、同寺の初期施設群に聖王の亡骸を仮に安置する施設としての仮の墓所が設定されたことを端緒とすると推定される。そこに、陵山里寺跡の立地が北魏や高句麗、梁など周辺国の寺院にはなく、風水を意識した南朝陵墓の立地に類似する理由があると考える。聖王の亡骸は中下塚へ本葬され、その過程で陵山里寺跡の初期施設群は聖王を追福、供養する寺院へと発展したのであろう。

こうした過程を経て百済で成立した「谷」寺の立地は、その後、泗沘都城周辺に造営された寺院にも採用される。そうした寺院のなかにみられるのが、威徳王の発願によって 577 年に創建された王興寺であり、泗沘都城の玄関口ともいえる地に所在し、百済王家の関わりが推定される臨江寺跡であることは、陵山里寺跡の造営段階で寺院造営に谷の利用がおこなわれて以降、風水に適う最良の地として、百済王家の造営する寺院に谷が主体的に採用された様相を示しているもの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백제사원의 입지 -계곡에 조영된 절들-

데즈카야마대학
시미즈 아키히로(清水 昭博)

백제 제30대 왕인 무왕이 익산에 조영한 미륵사는 지금 그 모습이 유적 형태로 바뀌긴 하였지만 이전 존재했을 때의 그 광대한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그러나 일본의 고대사원을 알고 있는 사람에 있어서는 미륵사적의 입지가 특이하게 느껴질 것이다. 미륵사는 미륵산에서 남쪽으로 뻗은 두개의 산등성이 사이의 커다란 계곡을 이용해 조영되었다. 이러한 계곡에 조영된 사원은 미륵사 뿐 아니라, 사비도성 주변의 몇개의 사원에서도 볼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사비도성 주변에 조영된 백제사원의 입지를 분석하고 계곡이라는 토지를 선택해 조영된 백제사원의 양상과 이러한 사원의 성립, 전개 상황과 그 배경을 검토하려고 한다.

사비도성 주변에 있는 백제사원 26 개사 가운데 가탑리사지, 관음사지, 능산리사지, 임강사지, 왕흥사지, 호암사지 등의 6 개 절이 미륵사지과 같이 계곡을 선택해 조영된 「계곡」사찰 에 해당한다. 이 사원들 가운데 가장 창건 연대가 오래된 것은 능산리사지로 550 년대에 조영이 시작된 능산리사지는 백제의 「계곡」사원의 기원으로 생각되어진다.

능산리사지의 입지는 성왕묘 (능산리 고분군·중하총)에 규정되고 있는데, 인접한 계곡의 이용은 이 절의 초기 시설군에 성왕의 주검을 임시 안치하는 시설로서 가묘가 설정된 것을 시초로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능산리사지의 입지가 북위나 고구려, 양 등의 주변국 사원에는 없고 풍수를 의식한 남조 능묘의 입지와 유사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왕의 주검은 중하총에 본장되는데 그 과정에서 능산리사지의 초기 시설군은 성왕을 추복, 공양하는 사원으로 발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백제에서 성립한 「계곡」사원의 입지는 이후 사비도성 주변에 조영된 사원에도 채용된다. 이러한 사원 중의 하나로 보여지는 것이 위덕왕의 발원에 의해 577 년에 창건된 왕흥사이고 사비도성의 현관 입구라고 할 수 있는 땅에 있어 백제 왕가와의 관계가 추정되는 임강사지이다. 이는 능산리사지 조영 단계에서 사원 조영에 계곡의 이용이 이루어진 이후, 풍수에 적합한 최선의 지역으로 백제 왕가가 조영한 사원에 계곡이 주체적으로 채용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近江国における百済の影響―宮井廃寺出土の塑像片を中心として―」

帝塚山大学
戸花　亜利州

天智２年(663)白村江の戦いでの敗戦と百済滅亡を契機として、近江国には多くの百済人が配され、『日本書紀』天智 4 年(665)条に「復以百済百姓男女四百餘人、居于近江国神前郡。」とあり、また『同紀』天智８年(669)条には「又以佐平余自信・佐平鬼室集斯等男女七百餘人、遷居近江国蒲生郡。」とあって、神崎郡や蒲生郡には多くの百済人が居住したことが記されている。現在、この地域には複数の古代寺院の存在が発掘調査によって明らかとなっているが、その中で多くの塑像片が発見された蒲生郡(現在の東近江市)の宮井廃寺に注目したい。宮井廃寺は 1980 年から実施された発掘調査によって金堂、塔、北方基壇、西方基壇が検出され、7 世紀後半の創建と推定されている。そして塔跡の焼土層からは塑像片が発見され、完形品はなく、いずれも破片ではあるが、形状から菩薩もしくは天部の髻の他、菩薩の瓔珞、菩薩の腕、天部の甲冑等の部位等が確認され、創建当初、宮井廃寺には像高 40cm～1m を超える様々な大きさの塑像が安置さ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そして塔跡から塑像片が出土したことや、推定で 40cm 程の小像が複数制作されていたことから、当初は法隆寺塔本塑像のような形態で安置されていたと考える。

周知の通り、百済では多くの塑像が制作されており、さらに宮井廃寺の塑像片には人物を思わせる塑像片も報告されていることから、こうした塑像の制作背景には百済の影響が大きく反映していると考える。付言ながら、天平宝字２年(758)から行われた東大寺大仏殿の天上版や廂の彩色に参加した画師について記した「正倉院文書」の「画工司移」(『大日本古文書』4-259)と「造東大寺司召文」(『大日本古文書』4-260)には、「毛野乙君近江国蒲生郡」とあって、蒲生郡出身の工人が東大寺に出向していることが記されており、8 世紀以降もこの地が中央との繋がりを示していた史料として注目される。

오우미노쿠니에 있어서의 백제의 영향
-미야이 절터 출토의 소상편을 중심으로-

데즈카야마대학
도바나 아리스(戸花 亜利州)

천지천황 2 년(663) 백촌강 전투의 패전과 백제멸망을 계기로 오우미노 쿠니에는 많은 수의 백제인이 살게 되 『日本書紀』 천지천황 4 년(665) 조에 「復以百濟百姓男女四百餘人, 居于近江國神前郡」라고 있으며, 또한 천지천황 8 년(669) 조에는 「又以佐平余自信 佐平鬼室集斯等男女七百餘人 遷居近江國蒲生郡」이라고 되어 있어 칸자키군이나 가모우군에는 많은 백제인이 거주했던 것으로 기록된다. 현재, 이 지역에는 여러 고대사원의 존재가 발굴조사에 의해 분명해져 있는데 그 중 많은 소상 파편이 발견된 가모우군(현재의 히가시오우미시)의 미야이 절터에 주목하고 싶다. 미야이 절터는 1980 년부터 실시한 발굴조사에 의해 금당, 탑, 북측기단, 서측기단이 발견되어 7 세기 후반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탑터의 소토층(불에 탄 흙)에서는 소상이 발견되어 전부 파편이긴 하지만 그 모양으로부터 보살 혹은 신장상의 머리모양 혹은 보살의 영락과 팔부분, 신장상의 갑옷 등의 부위가 확인된다. 창건 당시 이 사찰에는 상높이 40 센티미터에서 1 미터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소상을 안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탑터에서 소상 파편이 출토된 것이나, 40 센티미터 정도로 추정하는 소상이 여럿 제작되었던 것에서 당시에는 법륭사 탑에 안치한 소상과 같은 형태로 안치했다고 보인다.

잘 알려진 대로 백제에서는 다수의 소상이 제작되었고 또한 미야이 절터의 소상 중에는 인물상을 연상케하는 파편도 보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소상의 제작배경에는 백제의 영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 덧붙여 이야기 하자면 천평보자 2 년(758)부터 시작된 동대사 대불전의 천정이나, 처마나 서까래의 채색에 참가했던 화사에 대해 기록한 정창원문서의「畵工司移」(『大日本古文書』4—259)와 「造東大寺司召文」(『大日本古文書』4-260)에는「毛野乙君近江国蒲生郡」이라고 되어 있다. 또 가모우군 출신의 공인이 동대사에 나가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8 세기 이후에도 이 지역과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사료로서 주목하고 싶다.

７世紀の横穴式石室

奈良教育大学　金原正明

明日香の西側には、６世紀後半の穹窿状横穴式石室をもつ古墳（与楽鑵子塚古墳、真弓鑵子塚古墳、与楽カンジョ塚古墳）が分布する。百済中期の熊津時代の百済の王族の葬地である宋山里古墳群においては、５世紀後半から６世紀前半にかけて、穹窿状横穴式石室が築かれ、割石積みから塼築へと変化する。宋山里６号墳は塼築で四神と日月像が描かれる。百済後期の泗沘時代では６世紀中頃から玄室断面が六角形の平斜天井の横穴式石室へと移り変わる。切石化が進み、時期が下ると、羨道と墓道が短くなる。陵山里古墳群の壁画墳である東下塚は平天井であり、朱雀や白虎、月輪などが描かれ、蓮華文と飛雲文で満たされる。

日本の穹窿状横穴式石室は百済とは時期差があり後出になる。なお、渡来系氏族との関りが指摘されている。日本では６世紀末にかかり横穴式石室は石材が大きくなる。加えて６世紀末から横口式石槨が出現しだす地域がある。６世紀末頃から７世紀前葉にかけての横穴式石室は大和の藤ノ木古墳、牧野古墳、赤坂天王山古墳、都塚古墳、石舞台古墳、谷首古墳、南河内の金山古墳などで、巨石化し側壁はほぼ３段積みになる。７前半から中頃にかけて、玄室の天井が低くなり、塚穴山古墳、ムネサカ１号墳、文殊院東古墳、切石を用いた岩屋山古墳や聖徳太子墓、峯塚古墳、文殊院東古墳があり、基本的に側壁と奥壁は２段済みになる。また艸墓古墳や塚平古墳はより続く。横口式石槨は地域差がり、系統も一系統ではない。南河内の TK209 型式の須恵器の出土しているシショツカ古墳が速く、同型式のアカハゲ古墳、塚廻古墳と続き７世紀の前半に展開する。また、観音塚古墳およびその周辺の同系統の古墳やお亀石古墳は７世紀中頃を中心に展開する。いずれも時期が下ると羨道と墓道が簡略化される。奈良では横口式石槨の出現は半世紀遅れ、羨道と墓道が簡略化した型式のもの６世紀中頃から出現し、６世紀後半に花崗岩製から凝灰岩製へと変化する。平野塚穴山古墳は凝灰岩製の石槨であるが平天井で平面形は陵山里型古墳に類似する。日本においては６世紀の中頃に多少化する傾向がある。（写真は観音塚古墳）

7 세기의 횡혈식 석실

나라교육대학 가네하라 마사아키(金原 正明)

아스카 서쪽에는 6 세기 후반의 궁륭상 횡혈식 석실을 가지는 고분 (요라쿠 칸스즈카 고분, 마유미 칸스즈카 고분, 요라쿠 칸조즈카 고분)이 분포된다. 백제중기 웅진시대의 백제 왕족의 장지인 송산리고분군에 있어서는, 5 세기 후반에서 6 세기 전반에 걸쳐 궁륭상 횡혈식 석실이 축조되고, 할석쌓기에서 전축으로 변화한다. 송산리 6 호분은 전축으로 4 신과 일월상이 그려져있다. 백제 후기의 사비시대에서는 6 세기 중반 경부터 현실 단면이 육각형인 평사 천장의 횡혈식 석실로 변천한다. 석절화가 진행되어 시기가 내려가면 선도와 묘도가 짧아진다. 능산리 고분군의 벽와분인 동하총은 평천장으로 주작과 백호, 월륜 등이 그려져 있으며 연화문과 비운문으로 채워져있다.

일본의 궁륭상 횡혈식 석실은 백제와 시기 차이가 있어 후의 시기에 출토되고 있다. 여기에는 도래계 씨족과의 관련성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6 세기 말에 걸쳐 횡혈식 석실의 석재가 커진다. 또한 6 세기 말부터 횡구식 석곽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지역이 있다. 6 세기 말경부터 7 세기 전반에 걸친 횡혈식 석실은 야마토의 후지노키 고분, 바쿠야 고분, 아카사카 텐노잔 고분, 미야코즈카 고분, 이시부타이 고분, 다니쿠비 고분, 미나미카와치의 가나야마 고분 등으로, 거석화한 측벽은 거의 3 단 쌓기로 되어 있다. 7 세기 전반에서 중엽에 걸쳐 현실 천장이 낮아진다. 즈카아나야마 고분, 무네사카 1 호분, 몬주인 히가시 고분, 절석을 이용한 이와야 야마 고분과 성덕태자묘, 미네즈카 고분, 몬주인 히가시 고분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측벽과 안벽은 2 단 쌓기로 되어 있다. 또한 구사하카 고분과 쓰카히라 고분은 계속 이어진다..

횡구식 석곽은 지역차가 있고 계통도 한 계통이 아니다. 미나미 카와치의 TK209 형식 수혜기가 출토된 시시요즈카 고분이 이른 시기이고, 같은 형식의 아카하게 고분, 塚廻 즈카마와리 고분으로 이어져 7 세기 전반에 전개된다. 또한, 간논즈카 고분과 그 주변의 같은 계통 고분, 가메이시 고분은 7 세기 중반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어느 것이나 시기가 내려가면 선로와 무덤로가 간략화된다. 나라에서의 횡구식 석곽의 출현은 반세기 늦어져 연도와 묘도를 간략화 한 형식의 것이 6 세기 중반부터 출현하고, 6 세기 후반에는 화강암제에서 응회암제로 변화된다. 히라노즈카 아나야마 고분은 응회암제 석곽이지만 평천장으로 평면형은 능산리형 고분과 유사하다. 일본에서는 6 세기 중반 경 다소화(多少化) 하는 경향이 있다. (사진은 간논즈카 고분)

古代東国の渡来系資料としての溝もち掘立柱建物

東京学芸大学　文化財科学分野　日高　慎

渡来系資料には、遺物として実際に朝鮮半島から渡来した陶質土器や特殊な鉄製農工具類、金銅製馬具などの他、東南アジアや西アジアからもたらされたガラス製品など多種多様なものがあり、これまでそれらの評価をめぐって様ざまな研究が進められてきた。一方、遺構としてはＬ字竈、大壁建物・「溝もち」掘立柱建物などがあげられるが、遺物に比べて取り上げられることが少ないのが現状である。これらの他にも、飾大刀のなかに朝鮮半島製と思われる資料があるし、積石塚あるいは横穴式石室で朝鮮半島との直接的な関係を説く研究もある。

古墳時代を中心とした大壁建物は、琵琶湖周辺と奈良盆地南部に集中して検出されている。この種の建物が初めて検出されたのは滋賀県であり、調査に関わった林博通らにより研究がスタートした。林は当初切妻大壁造り住居としたものを大壁造り建物Ａタイプ、掘立柱建物であるが、柱筋に浅い布掘り溝を巡らすものを大壁造り建物Ｂタイプと呼び、Ａタイプのうち棟持柱をもつものをＡ－１タイプ、ないものをＡ－２タイプとした。このなかでＢタイプとされた建物については、「溝がなければ通常の掘立柱建物とは区別がつかず、調査時点ではすでに溝は消失してしまっている場合も多いとみられる」とされ、検出状況によって本来ならば全周していた溝が、部分的に残っているだけの場合もあることを指摘していることは極めて重要である。そして、これらの大壁造り建物の起源を、韓国公州市艇止山遺跡などの大壁造り建物に求めたのである。このほか、山中敏史、花田勝広、青柳泰介、大上周三らの研究が存在するが、ここでは割愛する。

中田英は、奈良時代以降の関東地域の掘立柱建物をＡ坪掘、Ｂ布掘、Ｃ「溝もち」と分類し、溝もち掘立柱建物が柱穴と柱穴をつなぐように溝が掘られているとしたのである。Ｂ布掘とＣ溝もちの違いとしては、前者は溝が一定方向に掘られることが多いが、後者は平側・妻側の両方向に掘られるものやＬ字状に溝がつながっているものもみられるとした。これらの建物は、神奈川県を中心に奈良時代から平安時代にかけて多くの類例があることを示した。また、壁構造についても、丸太材などの板壁であった可能性を説いたのである。中田は溝もち掘立柱建物として神奈川・群馬・栃木・静岡などの事例を示しているが、特に神奈川県では中田の論考以降も確実に類例が増えているし、関東あるいは東北など東日本全域で類例が確認できる。

さらに中田英は、溝もち掘立柱建物のなかでも溝が全周するタイプについて、溝が全周するものとそうでないもので上屋構造にも異なる部分があった可能性を考え、改めて神奈川県内での 18 例の全周するタイプについて考察した。それぞれの遺構やその周辺から渡来系遺物はほとんど見つかっていないが、栃木県宇都宮市西下谷田遺跡の柵による方形区画に取りついた八脚門とされた SB-10

が全周はしないものの溝もち掘立柱建物であり、方形区画内から新羅土器や陶質土器などが出土していることから、中田は「七世紀中葉まで大津北郊を中心に展開された大壁造り建物、それを構築する技術をもった渡来人の集団、あるいはその技術が七世紀後半の相模の地に伝えられ、郡衙跡の正倉や一部の建物、大規模集落の大型掘立柱建物の柱掘りかたとして」採用されたと考えたのである。

溝と柱穴の掘削方法の関係はいったん度外視することとし、溝もち掘立柱建物の溝について着目し、柱穴と柱穴をつなぐものを柱間溝もち掘立柱建物と呼び、いわゆる布掘状に梁行や桁行方向に複数の溝が通っているものを列状溝もち掘立柱建物と呼んで、溝が全周するものを全周溝もち掘立柱建物と呼ぶこととした。東国におけるすべての溝もち掘立柱建物を集成した結果、宮城県から静岡県までのもので管見に触れた限りで計 245 例が確認できた。そのうち全周するものが 46 例、列状のものが 43 例、柱間のものが 163 例となった。

3 種の溝もち掘立柱建物を集成した結果、それぞれが相互に深い関係を有している可能性が高い。それらが確認された遺跡をみると、官衙関連、寺院関連の遺跡であることが多い。国衙、郡衙、郷家、寺院あるいはその周辺集落と理解されている遺跡であることが多いのである。神奈川県域の柱間溝もち掘立柱建物群は、その多さゆえ一般的な集落も含まれていると思われるが、東国全域での全周溝もち掘立柱建物については、総柱建物を含めて官衙遺跡およびその周辺であることが多い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全周溝もち掘立柱建物と、柱間溝もち掘立柱建物、列状溝もち掘立柱建物のうち側柱部分（2 条）に溝があるものなどは同一系譜のなかで理解できる可能性がある。それは、古墳時代の近畿地域を中心に確認されている大壁建物とのつながりである。総柱建物についても大壁建物との関わりの可能性もある。溝もち掘立柱建物が大壁建物に系譜をもつものと考え、そこに渡来人の存在を見出したい。

古代東国にいた渡来人の役割とは、工人集団として招聘された人びとだったのではないか。窯業生産、金属加工、土木建築などにその技術を発揮するために存在したのではないか。自らの生い立ちを示すために、L 字竈をもつ住居に住んでいたり、その技術を請われて溝もち掘立柱建物を建設したりしていたのではなかろうか。官衙や寺院の周辺に多く認められるということは、政治・文化の中心に近いところに渡来人が存在していたことを表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だろうし、関東から東北まで渡来人の技術者たちが移動していった痕跡を表していると理解したい。

고대 동국의 도래계자료로서의 도랑이 있는 굴립주 건물

도쿄학예대학 문화재과학분야
히다카 신

도래계 자료에는 유물로서 실제로 한반도에서 도래한 도질토기나 특수한 철제농공구류, 금동제마구 등의 외에도 동남아시아나 서아시아로 부터 들어온 유리제품 등의 다종 다양한 것이 있어 지금까지 그에 대한 평가를 두고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편 유구로서는 ㄴ자형 아궁이, 대벽(큰벽)건물, 도랑형 굴립주 건물 등을 들 수 있는데 유물과 비교해서는 예로 드는 경우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 외에도 장식대도 중에 한반도제라고 생각되는 자료도 있고, 적석총 혹은 횡혈식석실에서도 한국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지적하는 연구도 있다.

고분시대를 중심으로한 대벽건물은 비와코(호)주변과 나라분지 남부에 집중되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건물이 처음 발견된 것은 시가현이며 조사에 관계된 하야시 히로미치 등과 같은 연구자에 의해 시작되었다. 하야시는 당초 팔자지붕 대벽건물을 주거로 한 것을 대벽건물 A 타입, 굴립주식 건물이지만 기둥을 따라 얕은 도랑을 판 것을 대벽 건물 B 타입으로 부르고, A 타입 중 동량을 받치는 것은 A-1 타입, 그렇지 않은 것은 A-2 타입으로 했다. 이 중 B 타입으로 된 건물에 대해서는 「도랑이 없으면 통상적인 굴립주건물과는 구별이 안 돼며 조사시점에서 이미 도랑은 소실되어 버린 것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라고하여 발견 상황에 따라 원래 대로라면 주위에 다 둘렀던 도랑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경우 만을 지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대벽건물의 기원을 한국 공주시 정지산유적 등의 대벽건물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야마나카, 하나다, 아오야기, 오오우에와 같은 연구자에 의한 연구가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생략한다.

나카타 씨는 나라시대이후 관동지역(동일본)의 굴립주건물을 A 평굴(필요한 터만을 파는), B 포굴(기둥이나 벽을따라 파는), C 도랑형(주구형)으로 분류하여 도랑이 있는 굴립주건물이 기둥 구멍들 사이를 잇도록 도랑을 판것으로 보았다. B 포굴과 C 도랑형의 차이에 대하여 전자는 도랑이 일정방향을 따라 파져 있는 것이 많은데, 후자는 외벽이나 측벽의 양쪽으로 파져 있는 것이나 L 자형으로 도랑이 이어져 있는 것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건물은 카나가와현을 중심으로 나라시대부터 헤이안시대에 걸쳐 많은 유사한 예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벽구조에 대해서도 통나무와 같은 재료의 판벽이었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나카타는 도랑형 굴립주건물로서 카나가와, 군마, 도치기, 시즈오카 등의 사례를 말하는데, 특히 카나가와현 등에서는 나카타의 논고 이후에도 확실히 유사례가 늘고 있으며 관동 혹은 동북 지방 등의 동일본 지역에서 그 예가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나카타 씨는 도랑형 굴립주건물 중에서도 도랑이 전부를 두르는 형태에 대하여, 도랑이 전부를 두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지붕구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생각해 다시금 카나가와현내에서의 18 례의 도랑이 전체를 두르는 형태에 대해 고찰했다. 각 유구나 그 주변에서 도래계 유물은 거의 보이지 않는데 도치기현 우츠노미야시 니시시모야타 유적의 목책에 의한 방형구획에 붙여진 팔각문이라고 된 SB-10 이 전부를 두르진 않지만 도랑을 갖는 굴립주식 건물로 방형구획 내에서는 신라토기나 도질토기 등이 출토하는 것에서 나카타는 「7 세기 중엽까지 오오츠 북쪽교외를 중심으로 전개된 대벽건물, 그것을 구축하는 기술을 가진 도래인 집단, 혹은 그 기술이 7 세기 후반 사가미 지역에 전해져 관청터의 창고나 일부 건물, 대규모취락의 대형 굴립주건물의 기둥터를 파는 방식으로」 채용되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도랑과 주혈(기둥구멍)의 굴삭방법의 관계는 차치하고, 도랑형 굴립주건물에 착안해 주혈끼리를 잇는, 기둥 사이의 도랑형 굴립주 건물이라고 불러 벽모양을 따라 정면과 측면 방향에 복수의 도랑을 낸것을 열상구(列狀溝, 열지어선 도랑)형 굴립주건물로 부르고 도랑을 전부 두른 것을 전주구(全周溝)형 굴립주건물로 불렀다. 동국(동일본) 지역의 모든 도랑형 굴립주건물을 집성한 결과 미야기현에서 시즈오카현까지의 것으로 현재 필자의 파악만 245 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그 중 전부를 두르는 것이 46 례, 열상이 43 례, 기둥사이의 것이 163 예가 되었다.

3 종의 도랑형 굴립주건물을 집성한 결과 각각은 서로 간에 깊은 관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들이 확인된 유적을 보면 관아관련, 사원관련의 유적인 경우가 많다. 관아, 군아, 향가, 사원 혹은 그 주변취락으로 이해된 유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카나가와현의 기둥 사이 도랑형 굴립주건물군은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집락에 속한다고 생각되어지나 동국전역에서의 전주구(全周溝)식 굴립주 건물에 대하여는 창고형건물을 포함해 관아유적 및 그 주변의 것들이 많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전주구형 굴립주 건물과, 주간구(柱間溝)형 굴립주 건물, 열상형의 굴립주 건물 중 측면 기둥부분(2 조)에 도랑이 있는 등의 것이 동일계보의 것에서 설명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고분시대의 킨키지방을 중심으로 확인된 대벽건물과의 연결고리이다. 창고형건물에 대하여도 대벽건물과의 관련 가능성도 있다. 도랑형 굴립주건물이 대벽건물에 계보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해 거기에 도래인의 존재를 끌어내보고자 한다.

고대 동일본에 있었던 도래인 역할은 공인집단으로서 초빙된 사람들이었던 것은 아닐까. 요업(토기 기와 제조등)생산, 금속가공, 토목건축 등에 그 기술을 발휘하기에 존재했던 것은 아닌지. 자신들의 삶의 궤적을 나타내기 위해 L 자형을 아궁이를 가지는 주거에 살거나 그 기술로 도랑형 굴립주건물을 건설하거나 했던 것은 아닐까. 관아나 사원의 주변에 많이 보이는 것은 정치 문화 중심의 가까운 곳에 도래인이 존재했던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관동부터 동북지방의 동일본 지역까지 도래인의 기술자들이 이동했던 흔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三国時代の韓半島と日本列島の交流　―5～6世紀を中心に―

洪潽植(公州大学校)

5世紀韓半島で確認された倭系資料は、古墳と遺物が南海岸～西海岸の海岸一帯に点在する。倭系古墳の特徴は1か所に一基ずつ独立的に占めており、平面形態が竪穴式石槨もしくは箱式石棺であり、埋葬主体施設内に土器が副葬されない点である。そして、馬山鎮北大坪1号墳を除けば金属器、中でも鉄鏃や鉄帽などの武器類と衝角附冑と帯金式短甲などの武具類が埋葬されている。これらの倭系古墳が一基ずつ立地した点、石槨がとても細長く蓋石を使用しない点、武器・武具の副葬が豊富で、土器が副葬されない点、副葬された武器と武具の種類と特徴が同時期の韓半島のそれと顕著な差が認められる点とともに、こうした事例は武器・武具の副葬方式が日本列島、特に九州北部と類似する。

倭系古墳が全羅南道の南西海岸に分布した背景と被葬者の出自については多様な見解が提示されている。百済と倭の交流ルーツを保護すべく主たる海岸と島嶼に常住する傭兵的な性格の武装集団、全羅南道の南西海岸に貿易船の寄港と渡船の役を担うために派遣された倭人、百済の要請により先進文物の提供を条件として韓半島に本格的に進出し百済王権と交渉や軍事支援活動をした倭人(倭系人)や現地勢力、南西海岸地域に形成された交易網に参加するため航行上の要衝に地元の集団と「雑居」していた倭人などが想定されている。

5世紀末から6世紀前半の倭系資料としては、慶尚南道の南西部地域と湖南(全羅道)地域一帯に分布した九州系の横穴式石室と似た倭系古墳と、忠清南道の錦江水系の公州と扶余一帯に分布した横穴墓である。これまでの発掘調査及び地表調査から大半の倭系古墳は前方後円墳14基と円形古墳11基が知られ、墳丘の基底や周溝から埴輪形装飾品が確認された。他にも埋葬主体施設は確認できていないものの、最近、墳丘と周溝などから人物・動物・器材埴輪の破片が発見された咸平錦山場岱里古墳も注目したい。

栄山江水系を中心とした湖南地域と固城湾と南江水系を中心として分布した倭系横穴式石室の特徴から倭系の要素のほかにも、百済系・在地系・伽耶系の要素が認められ、5世紀末から6世紀前半頃に築かれた短期性や、榮山江あたりにおける中心地域である羅州・潘南面一帯を取り囲む地域に1～2基程度が築かれた分散性などについてはおおむね見解が一致している。しかし、被葬者の出自と役割、彼らを操った背後にいる正体などについては諸説があり、倭系古墳被葬者の出自については大きく倭人説と在地首長説に分かれる。

古代から現在に至るまでの韓半島と、日本の政治体と集団は相互交隣と競争関係を繰り返してきた。いきすぎた競争で時には戦の惨状も生まれたが、常にそうであったわけではない。人々は双方を頻繁に往来しながら生活に必要な物資を交換し、そうし

た生業の化石として残ったものが物質資料であるため、今日における日韓の政治的な観点からの解釈は、事実を歪曲する恐れがあるため警戒せねばならない。

〈参考文献〉

権五榮　2005「考古学資料からみた百済と倭の関係　―榮山江流域の前方後円墳を中心に―　」『倭五王問題と韓日関係』景仁文化社
権沢章　2014「高興野幕古墳の年代と登場背景に関する検討」『古墳を通してみた湖南地域の対外交流と年代観』国立羅州文化財研究所
金洛中,2008「榮山江流域の初期横穴式石室の登場の意味」『湖南考古学報』29　湖南考古会
金洛中,2013「5～6世紀南海岸地域倭系古墳の特性と意義」『湖南考古学会』54　湖南考古学会
朴淳發,2002,「榮山江流域における前方後圓墳の意義」『前方後圓墳と古代日朝關係』朝鮮學會編，同成社
朴天秀，　2003a,「榮山江流域と加耶地域における倭系古墳の出現過程とその背景」『熊本古墳研究』創刊 號(熊本古墳研究會).
2003b「榮山江流域の前方後圓墳の出現の歴史的背景」『東アジアの古代文化』117(大和書房).
徐賢珠　2004「遺物からみた百済地域と日本列島の関係　―4～6世紀を中心に―　」『百済時代の対外関係』湖西考古学会)
李正浩　2014「新安　ベノリ古墳の対外交流相と年代観―新安ベノリ古墳の年代と築造背景を中心に―」『古墳からみた湖南地域の対外交流と年代観』国立羅州文化財研究所
林永珍　1997「全南地域石室封土墳の百済系統論再考」『湖南考古学報』6　湖南考古学会
林永珍　2000「榮山江流域の石室封土墳の性格」『地方史と地方文化』3-1　歴史文化学会
洪潽植　1998「韓半島南部地域の倭横穴式石室の構造と系統」『韓半島の前方後円墳』大韓文化財研究院
2010,「韓半島の倭系遺物とその背景-紀元後　4～6世紀前半代を中心に-」『古文化談叢』63，九州 古文化研究會.
高田貫太　2014「5～6世紀百済、榮山江流域と倭の交渉―「倭系古墳」前方後円墳の造営背景を中心に―」『全南西南海地域の海上交流と古代文化』(財団法人)全南文化芸術財団

三國時代 韓半島와 日本列島의 交流-5∽6世紀를 중심으로-

洪潽植(公州大學校)

5세기 韓半島에서 확인된 倭系 資料로는 고분과 유물들이 南海岸~西海岸의 海岸邊 일대에 点的으로 분포한다. 倭系 古墳들의 특징은 1곳에 1기씩 독립적으로 분포하고, 平面形態가 竪穴式石槨 또는 箱式石棺이며, 埋葬主體施設 내에 土器가 부장되지 않는 점들이다. 그리고 馬山 鎭北 大坪 1호분을 제외하면, 금속기, 특히 철촉.철모 등의 무기류와 衝角附冑.帶金式短甲 등의 무구류가 부장되었다. 이 倭系 古墳들이 1기씩 입지한 점, 석곽이 매우 세장하고, 蓋石을 사용하지 않은 점, 무기.무구 부장이 탁월하고, 土器 부장이 되지 않은 점, 부장된 무기와 무구의 종류와 특징이 동시기 韓半島의 그것들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과 함께 유사한 사례와 무기.무구 부장 습속이 日本列島, 특히 北部九州地域의 매장습속과 유사하다.

倭系고분이 全南 南西海岸에 분포한 배경과 被葬者의 出自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백제-왜의 교류루트를 보호하기 위해 주요한 해안과 도서에 상주한 용병적 성격의 무장집단, 전남 남서해안에 교역선의 기항과 도선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파견된 倭人, 백제의 요청에 의해 선진문물의 供與를 조건으로 韓半島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백제 왕권과 교섭하거나 군사 지원 활동을 한 倭人(왜계인) 또는 현지세력, 서남해안 지역에 형성된 교역네트워크에 참가하기 위해 항행상의 요충지에 재지의 집단과 『잡거』하고 있었던 왜인 등이 상정되었다.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의 왜계자료로는 경남 서남부지역과 호남지역 일대에 분포한 九州系 횡혈식석실과 유사한 倭系古墳과 충청남도 금강수계의 공주와 부여 일대에 분포한 횡혈묘이다.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및 지표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倭系 古墳은 현재까지 전방후원형고분 14기와 원형 고분 11기가 알려져 있고, 봉분 기저부 또는 주구에서 埴輪形 장식품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최근 매장주체시설은 조사되지 않았지만, 봉분과 주구 등에서 인물.동물.기재 하니와 편이 출토된 함평 금산 장대리고분도 주목된다.

영산강수계를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과 고성만 및 남강수계를 중심으로 분포한 倭系횡혈식석실의 속성에서 倭系 요소 이외에도 백제계.재지계, 가야계 요소가 인정되는 점, 5세기 말~6세기 전반 무렵에 축조되었다는 단기성이나 영산강유역에 있어서 중심지역인 나주 반남면 일대를 둘러싼 외연 지역에 1~2기 정도가 만들어졌다는 분산성 등에 대해서는 거의 공통된 견해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被葬者의 出自와 역할 및 그들을 움직이거나 배후에 조종한 주체 등에 대해서는 異見이 존재한다. 倭系고분 被葬者의 出自에 대해서는 크게 倭人설과

재지수장설로 구분된다.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韓半島와 日本列島의 정치체와 집단은 상호 교린과 경쟁관계를 되풀이 해왔다. 경쟁이 지나쳐 때로는 전쟁의 참상을 주기도 하였지만, 항상 그러한 관계는 아니었다. 민들은 쌍방을 빈번하게 왕래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주고받았고, 그러한 활동의 화석으로서 남은 것이 물질 자료이므로 현재의 한·일간의 정치적 관점에서의 해석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參考文獻>

權五榮, 2005,「고고학자료로 본 백제와 왜의 관계-영산강유역의 전방후원분을 중심으로-」『왜 5왕 문제와 한일관계』경인문화사.

權澤章, 2014,「高興 野幕古墳의 연대와 등장배경에 대한 검토」『고분을 통해 본 호남지역의 대외교 류와 연대관』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金洛中, 2008,「榮山江流域 初期橫穴式石室의 登場과 意味」『湖南考古學報』29, 湖南考古學會.

2013,「5~6세기 남해안지역 왜계고분의 특성과 의의」『湖南考古學報』54, 湖南考古學會

朴淳發, 2002,「榮山江流域における前方後圓墳の意義」『前方後圓墳と古代日朝關係』朝鮮學會編, 同成社).

朴天秀, 2003a,「榮山江流域と加耶地域における倭系古墳の出現過程とその背景」『熊本古墳研究』創刊 號(熊本古墳研究會).

2003b,「榮山江流域の前方後圓墳の出現の歷史的背景」『東アジアの古代文化』117(大和書房).

徐賢珠, 2004,「遺物을 통해 본 百濟地域과 日本列島의 關係-4~6세기를 중심으로-」『백제시대의 대 외관계』호서고고학회.

李正浩, 2014,「新安 배널리고분의 대외교류상과 연대관-신안 배널리고분의 연대와 축조배경을 중심으 로-」『고분을 통해 본 호남지역의 대외교류와 연대관』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林永珍, 1997a,「全南地域 石室封土墳의 百濟系統論 再考」『湖南考古學報』6, 湖南考古學會.

2000,「榮山江流域 石室封土墳의 性格」『地方史와 地方文化』3-1, 역사문화학회.

洪潽植, 1998,「한반도 남부지역의 왜 횡혈식석실의 구조와 계통」『한반도의 전방후원분』대한문화재 연구원.

2010,「韓半島の倭系遺物とその背景-紀元後 4~6世紀前半代を中心に-」『古文化談叢』63, 九州 古文化研究會.

高田貫太, 2014,「5-6세기 백제, 영산강유역과 왜의 교섭-「倭系고분」.전방후원분의 조영배경을 중 심으로-」『전남 서남해지역의 해상교류와 고대문화』(재)전남문화예술재단

古代日本と百済の文様塼の使用法の比較検討

帝塚山大学人文科学研究科日本伝統文化専攻　山本　剛史

塼とは焼成煉瓦のことである。基本的な使用法は、建物の床に敷き詰める、壁を形成するために積み重ねるなど建築部材として使われることが多い。これらの使用法は形状や文様の有無によって判別可能な場合がある。今回使用法の検討対象に選択した塼は、韓国扶余窺岩面外里遺跡の文様塼である。この文様塼の使用法を、日本の奈良県明日香村所在の岡寺出土と伝えられる天人文塼と鳳凰文塼の使用法と比較しながら検討してゆこうと思う。

岡寺出土の天人文塼と鳳凰文塼は、本来の使用法は明確ではないが、岡寺の寺伝によると岡本宮の腰瓦であったとしている。腰瓦とは建物や須弥壇の腰部に使われる瓦のことである。この岡本宮はおそらく飛鳥岡本宮であると考えられる。しかし、日本で宮殿に瓦塼が使用さ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藤原宮がはじまりであるため、現在は岡寺の腰瓦とする説が一般的である。

天人文塼に描かれた天人の身に着けている装飾は、下から風を受けて上に舞っているように描かれている。この姿は空中から舞い降りた姿を表現しているようにも見える。鳳凰文塼の鳳凰の周りには飛雲文を配している。さらに、鳳凰の脚は地面に垂直になるように揃えて描かれている。それは飛行している姿ではなく着地の瞬間を描いたものだと考えられる。そのためこれら二つの塼は、比較的地面に近いところに使用されていた可能性が高く、須弥壇の腰瓦として使用さ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

外里遺跡の塼は、文様の異なる塼を 9m の長さに約 30 枚並べた状態で出土している。文様は蓮華文、渦雲文、鳳凰文、蟠龍文、鬼形文 2 種(蓮華座・岩座)、山景文 2 種(鳳凰有・鳳凰無)の 8 種である。出土した際の文様の配列に規則性はなく、文様的にも敷塼としてではなく、壁塼として使用することを想定したものと思われる。そのため、これらの塼は再利用されたものと考えられる。

蓮華文と渦雲文は浄土を再現するために使用したとするならば、人が頻繁に足を踏み入れない須弥壇上面などの敷塼としての使用法が考えられる。蟠龍文と鳳凰文はどちらも聖なる動物のため、一対で使用された可能性が高い。表現に共通するところは少ないが、岡寺の鳳凰文塼と同じように須弥壇の腰瓦として使用されたと考えられる。鬼形文は鬼が蓮華座や岩座に立っていることから、岡寺の塼のように地面に近いところに使われていたと考えることもできる。山景文は建物内部に聖なる景観を再現するために作られたと考えればこちらは壁塼とみてもよいだろう。山景文と岩座型鬼形文の表現は似ているため、山景文と岩座型の鬼形文は同じ壁に使用さ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蓮華座型鬼形文と山景文はあまり似つかわしくないため、その 2 種は別々の壁に使用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

以上、岡寺の塼は腰瓦として、外里遺跡の塼は蓮華文と渦雲文は敷塼、蟠龍文と鳳凰文は腰瓦、山景文と鬼形文は壁塼としてそれぞれ使用さ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その中でも動物の文様塼が腰瓦として使用されていたという共通点は注目すべきところである。朝鮮半島での使用法をもとに日本の塼の使用法が伝わっ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

고대 일본과 백제의 문양전 사용법 비교 검토

데즈카야마대학 인문과학연구과 일본전통문화전공
야마모토 다케시(山本　剛史)

전이란 소성 연와를 말한다. 기본적인 사용법은 건물의 마루에 깔거나 벽을 만들기 위해 쌓아 올리는 등 건축 부재로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용법들은 모양이나 문양전의 유무에 따라 판별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번에 사용법의 검토 대상으로 선택한 전은 한국 부여 규암면 외리유적의 문양전이다. 이 문양전의 사용법을 일본 나라현 아스카무라 소재의 오카데라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는 천인문전과 봉황문전 사용법과 비교하면서 검토해 본다.

오카데라에서 출토한 천인문전과 봉황문전의 원래의 사용법은 명확하지 않지만, 오카데라의 절 전승에 의하면 오카모토 궁의 요와였다고 한다. 요와란 건물이나 수미단의 허리 부분에 쓰이는 기와를 말한다. 이 오카모토 궁은 아마도 아스카 오카모토 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에서 궁전에 와전이 사용되게 된 것은 후지와라 궁이 시초였기 때문에 현재는 오카데라의 요와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천인문전에 그려진 천인이 몸에 걸친 장식은 밑에서 바람을 받아 위로 떠오르듯이 그려져 있다. 이 모습은 공중에서 날아서 내려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 봉황문전의 봉황 주위에는 비운문을 넣고 있다. 또한 봉황의 다리는 지면에 수직이 되도록 정열되어 그려져 있다. 이것은 비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착지한 순간을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두개의 전은 비교적 지면에 가까운 곳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수미단의 요와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외리유적의 전은 문양이 다른 전이 9 m 길이로 약 30 장이 나란한 상태로 출토 되었다. 문양은 연화문, 와운문, 봉황문, 반룡문, 귀형문 2 종 (연화좌·암좌), 산형문 2 종 (봉황 있음·봉황 없음)등 8 종이다. 출토된 때의 문양 배열에 규칙성이 없어 문양적으로도 부전이 아니라 벽전으로의 사용을 상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전은 재이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연화문과 와운문이 정토를 재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빈번하게 발을 들여놓지 않는 수미단 상면 등의 부전으로서의 사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반룡문

봉황문은 모두 성스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표현에서 공통되는 점은 적지만, 오카데라의 봉황문전과 마찬가지로 수미단의 요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귀형문은 도깨비가 연화좌나 암좌에 서있다는 점에서 오카데라의 전과 같이 지면에 가까운 곳에 사용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산형문이 건물 내부에 성스러운 경관을 재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벽전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산형문과 암좌형 귀형문의 표현이 비슷하기 때문에 산형문과 암좌형의 귀형문은 같은 벽에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연화좌형 귀형문과 산형문은 그다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 2 종은 별개의 벽에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오카데라의 전은 요와로, 외리유적의 전은 연화문 및 와운문은 부전, 반룡문과 봉황문은 요와, 산형문과 귀형문은 벽전으로 각각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중에서도 동물의 문양전이 요와로 사용되었다는 공통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반도에서의 사용법을 기본으로 일본에 전 사용법이 전해진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3D データを用いた石造物の研究　―清州清原区飛中里三尊石仏の考察―

奈良教育大学大学院　佐野宏一郎

韓国は石造物の宝庫であり、石造物の研究は韓国の美術史研究において重要な課題である。仏教は韓半島を介して日本に伝わった。そのため韓国の石造物を研究することは、日本の美術史研究を進めるためにも極めて重要なことである。しかし、石造物の多くは野外にある。野外での石造物の造形観察は、太陽光や影、岩石の結晶構造や表面の色などの要因から肉眼では観察しにくい。近年の情報科学の発達により、高精細の 3D スキャナが開発された。3D スキャナで取得した高精細な 3D データは実物を観察するよりも、「太陽光などの外的条件を排除できる」、「形状データのみを抜き出すことができる」、「詳細を拡大表示できることや、全体を俯瞰すること、様々な角度から観察することが容易である」、「様々な加工を施すことができる」といった利点がある。本研究では、清州清原区飛中里三尊石仏の 3D データを上記の利点から観察を行い、国内や諸外国の仏像との関係性について考察した。

清州清原区飛中里三尊石仏は飛中里の集落内にある小高い丘の頂上に位置し、三国時代（6 世紀：百済か）の仏像であると考えられている。現状、高さ約 1.7m・幅約 1.9m であり、三尊仏の形式だが中尊光背の一部と左脇侍は現存しない。3D データの観察は山岸公基教授・李鎭榮氏らとともに行い、以下のことを考察した。

形状データを詳細に観察した結果、中尊の下側左右に獅子が彫られている可能性が浮上した。獅子は中尊の台座の角に座るように配置されている。縦方向に並ぶ化仏の下に見られる曲線の造形は、獅子の尾を表現した可能性がある。このような中尊の脇に獅子を配置する形式は、中国南北朝時代の仏像にみられる形式である。また、化仏の印相に注目するとそれぞれの印相が異なる可能性も浮上した。化仏の印相がそれぞれ異なる例は、慶州獐項里寺址石造如来立像（8 世紀：統一新羅）など後の時代の石仏に見られる。さらに、化仏の大きさをそれぞれ計測すると、下から上に向かって小さくなっていることが判明した。

輪郭線を抽出して表示し、全体を俯瞰して観察した結果、左右上下方向ともに内側に緩曲していることが判明した。また、中尊の光背上部が狭まる点から、中尊の光背は舟形光背を意識して作られた可能性がある。このことは化仏の光背が舟形になっていることからも推測できる。頭光部が丸く緩曲した舟形光背に化仏を配置する形式は、法隆寺金堂釈迦三尊像に代表される飛鳥文化の仏像光背に多く見られ、仏教文化の伝播を感じ取ることができる。

このように、清州清原区飛中里三尊石仏は中国大陸から韓半島を介して日本に伝わった仏教の道をなぞるように、それぞれの諸外国の仏教文化の影響を窺うことができる貴重な石仏である。

図：清州清原区飛中里三尊石仏 3D データ(正面)

3 차원스캔자료를 이용한 석조물의 연구
-청주 청원구 비중리 삼존석불의 고찰-

나라교육대학대학원

사노 고이치로(佐野 宏一郎)

한국은 석조물의 보고로서 석조물의 연구는 한국 미술사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다. 불교는 한반도를 매개로 하여 일본에 전해졌고 그러므로 한국의 석조물을 연구하는 것은 일본의 미술사 연구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석조물의 다수는 야외에 있다. 야외에서의 석조물의 조형관찰은 태양광이나 그림자, 원석의 결정구조나 표면 색등의 요인으로 육안으로는 관찰하기 어렵다. 최근 정보과학의 발달로 고성능 3 차원 스캐너가 개발되었다. 3 차원 스캐너로 취득한 고성능의 3 차원 자료는 실물을 관찰한다기 보다도「태양광 등의 외적 조건의 배제가 가능」, 「형상 자료만의 추출 가능」,「세부를 확대표시 하거나, 전체를 부감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는 것이 용이」, 「다양한 가공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주 청원구 비중리 삼존석불의 3 차원 스캔자료에 대해, 그 장점을 살려 관찰한 국내외의 불상과의 관계성에 대해 고찰하여 보았다.

청주 청원구 비중리 삼존석불은 비중리에 있는 둔덕 정상에 위치하고, 삼국시대(6 세기 백제)의 불상인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높이 약 170 센티미터 폭 약 190 센티미터이며 삼존불의 형식은 본존 광배의 일부와 좌협시보살은 현존하지 않는다. 3 차원 스캔 자료의 관찰은 야마기시 교수와, 이진영씨 등과 더불어 하였으며 이하에 관하여 고찰했다.

형상 자료의 상세를 관찰한 결과 본존의 하측좌우에 사자가 새겨져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사자는 본존 대좌의 모서리에 앉은 듯한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 종방향에 배치되 화불 아래에 보이는 곡선의 조형은 사자의 꼬리를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본존의 옆에 사자를 배치하는 형식은 중국 남북조시대의 불상에 보이는 형식이다. 또한 화불의 수인에 주목하면 제 각기 다를 가능성이 엿보인다. 화불의 수인이 각각 다른 예는 경주 장항리사지 석조여래입상(8 세기 통일신라)등, 후세의 석불에도 보인다. 또한 화불의 크기를 제각기 계측한 결과 아래부터 위로 향할수록 작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윤곽선을 추출해 표시하고 전체를 부감하여 관찰한 결과, 좌우상하방향이 더불어 내측으로 완곡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본존의 광배상부가 좁아짐에서 본존의 광배는 배모양의 주형광배를 의식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화불의 광배가 주형으로 된 점을 보아서도 추측가능하다. 두광부가 둥글게 완곡된 주형광배에 화불을 배치하는 형식은 법륭사 금당 석가삼존상으로 대표되는 아스카문화의 불상광배에 다수 보여, 불교문화의 전파를 감지할 수 잇다.

그림 : 청주 청원구 비중리삼존석불 3D 스캔

이렇듯 청주 청원구 비중리 삼존석불은 중국대륙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전해진 불교를 따르듯, 제각기 외부 여러나라의 불교문화의 영향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석불이다.

十王の配置について
～韓国の冥府殿十王像から見る東アジア十王図～

奈良教育大学大学院 教育学研究科 修士課程
教科教育専攻 造形表現・伝統文化教育専修 M2　吉田万智

1. 概要　―はじめに―

十王とは、死者の裁判を行う十人の裁判官のことである。十王の起源は 10 世紀頃の中国に見られ、後に朝鮮を介して日本にまで伝わる。韓国でも十王を表した絵画・彫刻は数多く存在し、その中で挙げられるのは〈地蔵十王図〉や寺院にある冥府殿の十王像彫刻などである。

本発表では、この韓国冥府殿の十王像と東アジアに見られる〈十王図〉（特に一幅一王で十幅から成るもの）での十王の配置順について、当時の仏事ではどのように配置されていたのかに関する知見を述べる。

また、十王の裁判順は、初七日秦広王、二七日初江王、三七日宋帝王、四七日五官王、五七日閻魔王、六七日変成王、七七日泰山王、百ヶ日平等王、一周忌都市王、三回忌五道転輪王である。これ以降簡略化するために、順に一：秦広王から十：五道転輪王という番号で呼ぶこととする。

2.　韓国の冥府殿十王像と東アジア十王図の配置順

韓国の冥府殿では、中心に地蔵菩薩像、あるいは地蔵菩薩図を配置し、その両脇を十王が各五体ずつ並んで坐す。また、十王の配置順は片側に一：秦広王、三：宋帝王、五：閻魔王、七：泰山王、九：都市王と並び、もう片側に二：初江王、四：五官王、六：変成王、八：平等王、十：五道転輪王と並ぶ。また〈地蔵十王図〉でも、地蔵菩薩を中心に左右に五体ずつ十王を配する。

左：静嘉堂文庫美術館本地蔵十王図［高麗］
右：滋賀・永源寺本十王図［元］

ここで、〈十王図〉について見てみる。〈十王図〉は、〈地蔵十王図〉と違って十王を十幅に渡ってそれぞれ表す。それと合わせて地蔵菩薩幅が一幅の合計十一幅存在するものがある。滋賀・永源寺本十王図（陸信忠筆）も合計十一幅存在するものである。では、この十王図は仏事の際にはどのように配置されていたのだろうか。十王図を裁判日順に一から並べると、十王が背中合わせになったり、向かい合ったりして異なった方向を向いてしまう。ここで、冒頭で述べた冥府殿に見られる十王の配置順に当てはめて考えてみる。つまり、地蔵菩薩幅を中央に配置し、向かって右側に一、三、五、七、九と並べ、向かって左側に二、四、六、八、十と並べると、十王が全て地蔵菩薩の側を向くようになるのである。まさに、冥府殿の十王像の配置順と一致する。必ずしも全ての十王図が冥府殿の十王像の配置順と一致するわけではないが、他にも一致する作品はいくつか見られ、奈良国立博物館本十王図や三重・西蓮寺本十王図などが挙げられる。

今日において、東アジアに残る〈十王図〉の作例は数多く、日本でも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仏事では、〈十王図〉十幅が一斉に懸けられたと考えられるが、その配置順については明確でなかった。しかし、〈地蔵十王図〉や現代にも残る韓国の冥府殿十王像からわかる配置順は、少なくとも一定数の〈十王図〉の当初の配置構想を窺わせると言え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参考文献

・呉永三(2013), MUSEUM 東京国立博物館誌第 642 号
「静嘉堂文庫美術館所蔵<十王図>十二幅に関する高麗・朝鮮資料からの考察」, 東京国立博物館
・中野照男(1992),日本の美術 No.313「閻魔・十王像」,至文堂

시왕의 배치에 관하여
～한국의 명부전 시왕상에서 보는 동아시아 시왕도～

나라교육대학대학원 교육학연구과 석사과정
교과교육전공 조형표현·전통문화교육 전수 M2 요시다 마치(吉田 万智)

1. 개요 ―서언―

시왕이란 사자(死者)의 재판을 담당하는 십인의 재판관을 말한다. 시왕의 기원은 10 세기경 중국으로 생각되며 후에 조선을 통해 일본에까지 전해진다. 한국에서도 시왕을 표현한 회화·조각은 수많이 존재하는데 이 중의 예가 〈지장 시왕도〉와 사원에 있는 명부전의 시왕상 조각 등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명부전 시왕상과 동아시아에서 보여지는 〈시왕도〉(특히 1 폭 1 왕으로 10 폭으로 이루어진 것)에 있어서의 시왕의 배치순에 관해 당시의 불교 행사에서는 어떻게 배치되고 있었는지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왕의 재판 순서는 초칠일 진광왕, 이칠일 초강왕, 삼칠일 송제왕, 사칠일 오관왕, 오칠일 염마왕, 육칠일 변성왕, 칠칠일 태산왕, 백일 평등왕, 일주기 도시왕, 삼회기 오도전륜왕이다. 이 다음부터는 간략화해 순서데로 1:진광왕부터 10:오도전륜왕으로 번호로 호칭하기로 한다.

2.한국의 명부전 시왕상과 동아시아 시왕도의 배치순

한국의 명부전에서는 중심에 지장보살상, 또는 지장보살도를 배치하고 그 양 옆에 시왕이 다섯명씩 나란히 앉는다. 그리고 시왕의 배치순은 한쪽편에 1:진광왕, 3:송제왕, 5:염마왕, 7:태산왕, 9:도시왕이 나란히 서고, 다른 한쪽편에 2:초강왕, 4:오관왕, 6:변성왕, 8:평등왕, 시:오도 전륜왕이 선다. 또한〈지장 시왕도〉에서도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다섯명씩 시왕을 배치한다.

左：静嘉堂文庫美術館本地蔵十王図［高麗］
右：滋賀・永源寺本十王図［元］

여기에서 〈시왕도〉에 관해 보도록 하겠다. 〈시왕도〉는 〈지장 시왕도〉와 달리 시왕을 10 폭에 걸쳐 각각 표현한다. 여기에 맞추어 지장보살폭이 1 폭, 합계 11 폭이 존재하는 것이 있다. 시가현·에이겐지 소장 시왕도(육신충 그림)에도 합계 11 폭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시왕도가 불교 행사 때에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보도록 한다. 시왕도를 재판일 순서로 1 부터 나란히 하면, 시왕이 등을 마주하거나 마주보기도 하여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된다. 여기서 앞에서 말한 명부전에서 보여지는 시왕의 배치 순서를 적용해 생각해 본다. 즉 지장보살 폭을 중앙에 배치하고 마주한 우측에 1,3,5,7,9, 마주한 좌측에 2,4,6,8,10 순으로 나란히 하면 시왕이 전부 지장보살 쪽을 향하게 된다. 이것은 명부전의 시왕상 배치순과 일치한다. 반드시 모든 시왕도가 명부전의 시왕상 배치순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외에도 일치하는 작품을 몇 개 볼 수 있다. 나라국립박물관 소장 시왕도와 미에현의 사이렌지(서연사) 시왕도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 동아시아에 남아 있는 〈시왕도〉의 작품예는 상당수 있으며 일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불교 행사에서는 〈시왕도〉 10 폭이 한번에 내걸렸다고 생각되지만 그 배치 순서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지장 시왕도〉와 현대에 남아 있는 한국의 명부전 시왕상을 통해 알 수 있는 배치순은 적어도 일정수의 〈시왕도〉에 있어 당초의 배치 구상을 엿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오영삼 (2013),MUSEUM 도쿄 국립박물관지 제 642 호
「세이카도문고 미술관 소장 <시왕도> 12 폭에 관한 고려·조선자료로부터의 고찰」,도쿄 국립박물관
・나카노 아키오 (1992), 일본의 미술 No.313 「염마·시왕상」,시분토.